

#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정 창 권\*

1. 머리말
2.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정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3. 남은 과제

## 초 록

이 글은 조선후기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 여성소설의 태동과 존재를 둘러싼 사회학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아가 이들 소설의 역사적 의의까지 파악코자 했다.

본디 우리 민족은 여권 존중의 전통을 갖고 있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 실질적인 사회에선 제한적이거나 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활달한 여성들은 매우 선진적인 활약상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전통은 고려 이래 조선 전·중기까지도 비교적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중기 유교식 제도정비에 따라 주자학적 가부장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조선후기 예학의 발달과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정착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사회에서 여권은 말살된 채, 여성은 단지 남성위주의 사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장편 여성소설은 이처럼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에 따른 여성사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해서 태동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소설의 역사적 의의는 것처럼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

\* 고려대 강사.

삶과 의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파편적인 형태일지라도 근대적인 여성해방 의의까지 표출했다는 점에 있다.

결국 한국 여성주의 문학은 근대 이후 서구의 충격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거의 동시대에 태동했다고 생각한다.

## 1. 머리말

우리는 흔히 근대 이후의 여성소설이 당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의해 거의 돌발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의 여성소설은, 근대 이후 밀려든 서구 페미니즘 담론에 영향받아 전혀 새롭게 출현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선후기 여성소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그것들이 내세운 문제의식은 서로 다르지만, 글쓰기 방식을 비롯한 기본적인 성향은 시대를 초월하여 매우 유사한 듯하다. 그 단적인 예로서, 근대 이후 여성소설에서 각가지 여성의식을 표출하기 위해 자주 구사했던 자기체험의 글쓰기나 대화체적 글쓰기는, 이미 조선후기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 여성소설(약칭 ‘장편 여성소설’)에서 빈번히 사용된 방법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박완서의 『미망』이나 박경리의 『토지』처럼, 여성들이 대하 장편소설을 통해 다양한 여성세계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에서 이미 마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전통시대 여성서사문학은 『계축일기』나 『한중록』과 같은 실기류가 전부인 것으로 간주한 채, 그 같은 국문 장편소설 특히 여성소설과의 연계성에 대해 별달리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국문 장편소설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여성문화이자 여성문학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후기 여성들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소설문화를 꽃피웠다. 이미 17세기 중·후반부터 궁중과 사대부가를 비롯한 상층여성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소설문화를 형성했고, 18세기 이후엔 상업적

인 세책가가 번성하면서 일반 유한층 여성들까지 소설문화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소설이 번역되는 한편, 우리의 국문 장편소설이 18세기를 절정으로 대거 쏟아져 나왔다. 이들 소설은 대개 언문으로 손수 쓰여진 국문 필사본이며, 전편과 후편 및 기타 방작들로 계속 이어지는 연작소설이자, 수십수백 책에 이르는 대하장편소설이다. 예를 들어 『소현성록』(총 15책)은 전편 『소현성록』(4책)과 후편 『소씨삼대록』(11책)(이상은 주로 직계가족 이야기)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인데, 이 작품은 이 밖에 『한씨삼대록』 『설씨삼대록』 『수제옥환빙』(이상은 주로 확대가족 이야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작과 파생작을 갖고 있다. 또한 18세기에 창작된 『완월회맹연』은 180권 180책이란 엄청난 분량을 지닌 대하 장편소설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여성들은 이같은 국문 장편소설의 독자로서만이 아니라, 작가로서도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대작을 남기기도 했다. 예컨대 현재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국문 장편소설은, 여성작가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소설에서 남성들의 참여를 전혀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처럼, 국문 장편소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뿐만 아니라 한문본과 국문본이 공존하거나 혹은 한문본만 가진 일명 한문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향유하였다. 그리고 어릴 적 언문 공부나 늙으막의 소일거리 및 실의한 남성들의 다양한 취향에서 일부 국문 장편소설을 향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과거 여성사에 대한 편견이나 실증이란 미명 아래 국문 장편소설에서 여성의 존재는 소외되어 왔다. 또한 이들 작품의 성격도 가부장제 가문주의를 지향한 가문소설이라는, 대단히 획일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모습으로 읽혀져 왔다. 그것은 이들 소설이 17세기 후반 사대부창작 가문소설인 『창선감의록』의 영향으로 출현했다는 선형적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강현전』과 『소현성록』을 비롯한 장편 여성소설이 그보다 먼저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유행하고 있었고, 이후 국문 장편소설은 이들 소설의 주도적인 영향 아래 출현했다

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같은 생각은 대폭 수정되었다. 대신에 여성들의 존재가 다시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근래 젊은 연구자들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별 작품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 여성소설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작가와 작품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내용의 심층에서 여성 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작품을 찾아냈으며, 이같은 여성소설을 한자리에 모아 소설사적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국문 장편소설은 본래 여성과 친연적인 작품이었으며, 그중에는 여성소설도 적잖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 장편 여성소설의 정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으며, 또한 여성들은 소설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소설에 생생한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태동과 존재를 둘러싼 사회사적 고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그것은 앞으로 여성소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이같은 현실적인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나는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sup>1)</sup>란 글에서, 이들의 출현 동기를 근본적으로 과거부터 면면히 흘러내려온 여성들의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다 직접적으로 17세기 이후 급격히 강화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지의 결과라고 짚막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는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이었지만, 여성소설의 태동이 조선 후기 주지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엔 별로 변함이 없다. 사실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의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사회제도를 말하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역사적인 개념이다. 고대삼국과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엔 비록 국가적으로는 가부장제사회였지만, 나름대로 여성의 권리 곧 여권도 존중되

1)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집(1998).

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실질사회에선 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활달한 여성들은 매우 선진적인 활약상을 펼치기도 했다. 이같은 전통은 조선 전·중기까지도 비교적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중기 유교식 제도정비에 따라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은 점차 확산되고, 조선후기 예학의 발달과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정착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에서 여권은 말살되고, 여성의 존재도 단지 남성위주의 부계사회를 계승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성소설은 이처럼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에 따른 여성사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해서 태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소설의 역사적 의의는 그같은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파편적인 형태일지라도 근대적인 여성해방의지까지 표출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사회·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정을 살펴 보면서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과 존재를 둘러싼 사회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고는 가부장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 혼인, 상속 제도와 같은 미시적인 관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통시대 사람들의 실질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제도이자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에도 매우 중요했던 제도였기 때문이다.

## 2.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정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 1) 조선 전·중기 국가 가부장제와 여성들의 선진적인 활약상

현재 우리의 고대사회에 대한 관심이 열악한 관계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디 우리 민족은 여타 주변국과는 달리 부권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여권도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물

론 고대사회가 남녀 평등사회였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사회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사회였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국가적으로 내외가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남녀 분별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가부장제는 조선후기와 달리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고대사회에선 여성들의 선진적인 활약상을 그런대로 인정했고, 가족과 친족을 둘러싼 실질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처럼, 고대사회 여성들은 실질사회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회참여로 대단히 선진적인 활약상을 펼쳤던 듯하다. 나아가 이같은 여권 존중의 전통은 고려시대만이 아니라 조선 전·중기까지 계속 잔존하면서 우리들에게 남녀공존의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선 전·중기에 유교식으로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널리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려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전래되어온 여권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했다. 이에 우리는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특히 고려이래 조선 전·중기까지 유습된 여권 존중의 전통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 시기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사회조직의 원리였던 가족과 친족 제도부터 살펴보자. 대개 고려시대 가족은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녀들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기본적인 형태였고, 때로는 여기에 노부모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 친척을 동반하는 확대가족도 있었다. 특히 호적자료를 보면 고려시대 여성들은 남편이 없는 경우엔 비록 아들이 있어도 호주였다.<sup>2)</sup> 또한 고려시대 친족조직은 조선후기의 남성중심적인 부계 위주와는 달리, 부계와 모계의 비중이 대등한 양측적 친족조직이었다. 예컨대 호적이나 법제들에 나타난 계보들을 살펴보면, 남(男)에서 남(男)으로만 이어지는 계보만이 아니라 여(女)에서 여(女)로만 이어지는 계보, 그리고 중간에 남(男)과 여(女)가 다양한 형태로 개재되는

2) 허홍식, 「고려 여성의 지위와 역할」, 『한국사시민강좌』 15(일조각, 1994).

남녀균등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혼수도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원근관계가 정해졌는데, 이처럼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어 개인간의 개별적인 관계로 작용하는 친족관계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각 개인들은 친족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활동을 할 수 있었다.<sup>3)</sup> 이같은 남녀균등한 친족조직은 조선조에도 그대로 연결되었다. 조선시대 친족제도는 가계기록인 족보를 통해 잘 드러난다. 여말선초에 만들어진 『해주오씨족도』, 조선전기의 『안동권씨성화보』, 『문화유씨가정보』 등 조선전기 족보는 대개 8고조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같은 편찬방식은 조선후기 족보처럼 시조를 기점으로 그의 자손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나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8고조도는 부계 위주인 후기 족보와 달리 부계와 모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공평하게 출생순으로 기록하며, 딸의 자손인 외손을 본손과 마찬가지로 세대의 제한없이 수록하고 있다. 초기 족보에선 외손의 수가 본손의 수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sup>4)</sup>

다음은 가족공동체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혼속과 결혼생활에 대해 살펴보자. 고려시대 혼인방식은 남귀여가였다. 남귀여가란 혼인 후 남자가 여자집으로 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중국과 다른 우리 고유의 혼속이었다. 결혼 후의 생활도 여성들은 친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엔 부모들이 딸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 전사회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동거기간도 혼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40·50년 사위와 동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결과 고려시대엔 상례에서 외조부모복과 처부모복이 매우 중시되었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에는 “전조(고려시대)의 구속(舊俗)에는 혼인하던 예법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外家)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은혜가 증함으로 해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服)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급가(給暇)하였습니다(태종실록 029 15/01/15

3) 노명호, 「가족제도」, 『한국사』 15(국사편찬위원회, 1995).

4)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일조각, 1987), 참고.

(갑인))”라고 기록하고 있다.<sup>5)</sup> 이같은 혼속과 결혼생활은 조선 전·중기에도 널리 행해졌다. 물론 조선중기 이후 『주자가례』에 따른 유교식 친영제도나 절충형인 반친영제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 상층사람들에 국한되었다. 남귀여가 혼속은 조선후기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점차 붕괴되었다. 심지어 조선전기 김숙지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동시에 처가로 옮겨 살았고, 그의 아들인 김종직도 외가에서 살았다. 또한 얼마 전 발굴되어 TV에서도 방영했지만, 이응태의 부인이 쓴 편지에 의하면 조선중기인 16세기말까지도 영남지방에선 여성들이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탓인지 그들 부부는 서로 ‘자내’라고 호칭할 정도로 대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유로운 애정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같은 남귀여가 혼속과 남성들의 처가 혹은 외가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남녀의 책임과 의무도 서로 동등했다. 이러한 사실은 상속제도와 경제권을 통해 확인된다. 우선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아들과 딸에게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 호적에는 남편과 부인이 소유한 노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후사가 없는 등 상속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부인의 본가로 돌려 보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남편과 부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각각 별도로 시주한 사실로 엿보아 자신의 재산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던 듯하다. 이같은 고려시대 균분상속은 조선전기에도 이어져서 조선왕조 헌법인 『경국대전』에도 올라 있다. 다만 여기서는 가계를 계승할 장남에게 가급분을 주었을 뿐이다. 또한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를 보면, 조선전기에도 부부 또는 부모가 제각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권도 동등하게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김종직의 후처 남평문씨는 무오사화를 계기로 영락한 김종직 가문에 들어와 재산을 증식시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자손들에게 균분상속하여 가통을 잇도록 했다. 즉 당대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

---

5) 노명호, 앞의 논문(1995), 참고.



받았고, 직접 관리 혹은 경영하여 재산을 불리기도 했으며, 분계기로써 자손들에게 상속하기도 했다.<sup>6)</sup> 이와 더불어 장례와 제사를 비롯한 남녀가 수행해야 할 의무도 서로 동등했다. 고려나 조선전기는 사후의 장례와 제례를 모두 절에 위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그 비용도 형제자매들이 공동부담했다. 제사상속에 있어서도 후손이 없을 경우엔 입후하지 않고 외손봉사를 했다.<sup>7)</sup>

또한 고려시대는 불교사회로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활동제약이 비교적 느슨한 사회였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유교가 요구하는 부덕이란 규범으로 자신의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성들이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한다고 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가해서 남편이 남긴 자식을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여성의 덕목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종비인 문덕왕후 유씨나 충선왕비인 순천허씨는 왕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다. 또한 여성들 가운데는 제사와 관련된 기은사라는 직책을 맡기도 했으며, 사찰에 재산을 시주하면서 종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같은 점은 조선전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시기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국대전』이다. 여기에는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 사족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잔치를 하거나, 야제 산천 성황의 사묘제를 직접 지낸자는 모두 장 100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시대 여성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쳤음을 역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고려시대는 불확실하나, 조선 전·중기까지는 가학(家學)의 전통이 살아 있으면서 상당수 여성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출현했다. 흔히 우리는 전통시대 여성들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도 공식적인 기관에 필적할 만한 가학의 전통이

6) 이수건, 「조선전기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한국친족제도연구』(일조각, 1992); 김용만, 「조선시대 구분상속제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23(1983).

7) 김성숙, 「조선초기의 제사상속법리와 총부법」, 『숭선대학교논문집』 15(1985).

있었다. 사실 이때의 공식적인 교육제도는 일부 특권층에 국한되어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친척 등에게 배웠다. 김종직은 아버지 김숙자의 가학을 이었으며,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은 어머니 해평윤씨에게 배웠다. 더구나 남자들은 어쩔든 서당이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런 기회마저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학은 필수적이었다. 주로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배우거나 오빠나 동생들이 공부하는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어깨너머 배운 공부가 매서운 법!, 조선중기까지는 가학의 전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계속해서 뛰어난 여성예술가들이 이어져 나왔다. 예컨대 조선전기 설씨 부인은 부도암이란 사찰의 중건을 위한 권선문(勸善文)과 그 배경 산수화를 남겼다.<sup>8)</sup> 조선중기 송덕봉은 개방적인 집안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남편 유희춘과 더불어 시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면서 살 정도로 한시에 능하였고, 그 재종손녀인 권필의 부인 송씨 또한 뒤를 이어 한시에 조예가 깊었다.<sup>9)</sup> 신사임당도 독학과 아버지에게 글을 배워 일생동안 탁월한 예술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율곡 이이를 비롯한 7남매를 가르쳐서 훌륭히 성장시켰다. 그녀의 딸 매창과 손녀인 벽오 이시발의 부인도 그같은 가학을 이어받아 예술활동을 펼쳤다. 허난설헌 또한 양친허씨 집안의 학문적 배경으로 성장하여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천재시인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약간 후대인 17세기에 해당되지만, 최근에 이문열 「선택」의 주인공으로 세간의 적잖은 파란을 일으켰던 안동장씨 역시 아버지 곁에서 듣고 터득하여 문학, 예술, 교육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법적·경제적인 여권존중의 전통과 남녀공존의식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작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시대 문학 속의 여성들도 또한 자기 감정을 솔직대담하게 표현하며 남성들과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가 생각한다. 조선전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통해 조선후기 가부장제가 정착되기 이전 여성들의 선진적인 삶과 사랑에 대해 간략히 살

8) 『정부인순창설씨의 문학과 예술』(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7).

9) 송재용, 「여류문인 송덕봉의 생애와 문학」, 『국문학논집』 15(단국대, 1997).

펴보자. 『금오신화』에는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등 현실에서 소외된 문인지식층의 사상이 질게 표현된 작품들도 있지만,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처럼 당대 사회현실과 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도 있다. 특히 이생규장전은 조선전기 종합풍속서인 성현의 『용재총화』 안생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여 이같은 생각을 더욱 굳게한다. 이 작품은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비록 이생이란 남성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여주인공 최랑에 의해 주도된다. 그녀는 시로써 사랑을 주고받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에 뛰어나다. 강한 부권(父權)에 제압되어 낮선 남성에게 시집가서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조선후기 여성들과는 달리, 그녀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를 선택하여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결국엔 철없는 이생을 감동시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로 하여금 적극적인 인생을 살도록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 최랑의 부모도 대단히 선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부모도 모르게 사랑하면서 중병을 앓는 딸을 보고 집안망신시켰다고 당장 내쫓기보다 “아이구 까딱 잘못했다면 내 귀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중기는 비록 국가적으론 가부장제 사회였다할지라도, 실질사회에선 고려이래 유습된 여권 존중의 전통을 상당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결과 활달한 여성들은 오늘날 보기에다 매우 선진적인 활약상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성예술가들은 탁월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 2) 조선후기 문벌사회의 도래와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

조선 전·중기는 여전히 여권 존중의 풍습이 잔존해 있었다. 그와 함께 고려말 중국의 주자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지극히 남녀차별적인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이때까지의 가부장제는 주로 의식적인 측면에 국한된 문제였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예학의 발달

과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정착되었다. 조선후기 가부장제는 이전의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사회까지 철저히 자리잡았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여권은 말살된 채, 여성은 단지 남성위주의 사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양상은 17세기 중후반에서 18·19세기로 내려갈수록 전사회계층에 걸쳐 점점더 심해갔으며, 특히 상류사회로 갈수록 더욱 극심했다. 조선후기 여성소설은 이같은 질곡의 시대에서 특히 상류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태동했다. 이에 아래에서는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정을 고찰하면서 장편 여성소설이 태동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조선 전·중기는 지배자들이 『주자가례』를 통해 유교식으로 제도를 정비하면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예컨대 고려말 신홍사대부들은 불교에 대한 반성과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해 실천윤리에 관심을 갖고 주자성리학을 적극 수용했다. 그래서 정몽주나 조준 등은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주장했다. 선초에 들어서도 지배층은 질서를 확립하고 불교와 민간신앙에 쫓아있던 사회 관습을 유교식으로 바꾸고자 『주자가례』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주자가례』란 종법에 바탕한 유교의례서를 말한다. 이 책에서 가장 첫머리를 차지할 정도로 강조한 것은 종법인데, 이는 간단히 말해서 부계 적장자 위주의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이다. 조선전기 이같은 종법에 의거한 가족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일처제 형태의 가족제도 수립이었다. 예컨대 조선전기 지배층들은 부계 적장자 위주의 종법적 가족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유처취처(有妻娶妻)를 금지하고 처와 첩을 구분함으로써 일부일처제적 가족제도를 확립코자 했다. 유처취처란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를 얻는 일부다처의 형태를 말하는데, 고려시대엔 종법이 일반화되지 않은 까닭으로 별다른 사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성종대엔 한 집안에 적처가 둘이 있을 수 없다(禮無二嫡)는 종법적 입장에서 규제했다. 그결과 이제 여성들은 정처가

되면 남편의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적자로 대우받지만, 나머지 여성과 그 자식들은 첩과 서얼로 규정된 채 재산 상속과 사회진출에 차별받게 되었다.<sup>10)</sup> 또한 『주자가례』는 이같은 종법을 유지하기 위해 관혼상제 등의 유교식 의례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전기 지배층도 사대부로 하여금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워 조상에 제사하고 3년상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유교식 조상숭배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종법적 가족질서를 통한 신분질서의 확립을 꾀했다.

이처럼 선초이래 사회제도 정비과정에서 보급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은, 16세기 사림의 진출에 따라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주자학적 사회윤리에 비교적 투철했던 사림은 관혼상제를 『주자가례』대로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학』의 이해와 실천을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굉필과 김안국이었는데, 김굉필은 일생동안 소학동자라 자칭하며 소학을 적극 숭상하였고, 그의 제자인 김안국도 이를 간행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그결과 소학은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16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향약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퇴계와 율곡의 향약이 나오므로써 조선 특유의 향약이 토착화된다. 그런데 본래 향약의 정신은 오륜의 가치를 향촌 생활에 입각해서 세분 내지 연장시킨 것으로, 이전부터 보급하던 『주자가례』나 삼강행실도의 정신과 상통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약이 토착화됐다는 것은 건국 이래 계속되어온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sup>11)</sup>. 그결과 늦어도 16세기 중엽에는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렇다고 그같은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엔 주로 의식적 측면에 국한되었을 뿐, 하나의 제도로서의 가부장제는 아직까진 왕실과 사대부를 비롯한 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보

10) 이순구,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1) 윤사순, 「조선조 예사상연구」, 『동양학』 13(1983).

급단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조선후기에 이르러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단순히 의식적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점차 전사회계층에 정착되었다. 그것은 17세기 중반 이후 가열된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의 도래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에 앞서 17세기 전반 이래 예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조선사회에 적장자 위주의 종법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이 널리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정착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17세기 중반 이후의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의 도래였다. 양란 후 조선후기에 이르면 군공, 납속, 관직매수 등을 통해 양반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신분체에 동요가 일어났다. 또한 과거의 남설로 예비관료집단이 대폭 증가하여 관직을 얻기 위한 치열한 쟁투가 벌어졌다. 조선후기 심화된 당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1623년 서인들은 남인과 협동으로 인조반정이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때 동용된 남인들은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인들의 민심안정책일 뿐이었다. 서인들은 당대 내노라 하는 요직을 장악한 채, ‘송용산림 국혼물실(崇用山林 國婚勿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권의지를 분명히 했다. 즉 산림을 높이 동용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왕이나 세자와의 국혼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자신들만이 내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후 자신들의 장기적인 정치기반을 확고히 했던 것이다. 이후 서인들은 선조 때에 보여주었던 개혁적인 성향과는 달리, 때로는 국가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에 종속시키거나 현실보다 명분을 중시하며, 때로는 정권유지를 위해 반대파들에 대한 대량학살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하여 1680년 경신환국을 계기로 그마저의 남인들도 몰아낸 서인들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노론의 일당전제를 추진시켰다. 물론 영조대 탕평책을 내세워 봉당을 초월한 인재동용을 꾀했지만, 당시의 정국은 여전히 노소양계의 조정에 지나지 않았고, 그 말년에 가서는 오히려 노론측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급기야 19세기에는 외척가문의 세도정치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서인에 이은 노

론계 가문들은 잇따른 환국으로 반대파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양반사회의 변칙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는 별열정치를 감행했다.<sup>12)</sup> 그 결과 조선후기 사대부계급은 세습적 특수집권층인 별열과 영구히 몰락한 실권층인 士로 분화되었다.<sup>13)</sup>

대개 별열이란 조선후기 양반층에서 분화된 최상층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관인을 배출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세습했던 문벌가문을 말하고, 별열정치란 이같은 몇몇 지체 높은 가문끼리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선 별열은 파를 더욱 세분한 특정 가계중심의 가문을 단위로 형성되었는데, 이들 가문에는 부-조-증조의 3세대 6촌 가운데 1인이 반드시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서울에 거주했으므로, 흔히 경화별열이라 부른다.<sup>14)</sup> 이들은 조선후기 사회를 지배했던 존재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별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벌을 유지하면서 자기문의 사회적 우월의식인 문벌의식을 내세워 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했다. 이들은 문벌가문이 아니면 당상관 이상의 벼슬에 좀처럼 오를 수 없게 했고, 청직은 더욱 그랬다. 또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의 지위인 문벌에 의거하여 선발함으로써 자신들이 관직을 독차지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엔 가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인 문벌을 우선시하는 ‘문벌사회’ 혹은 ‘가문주의사회’가 도래했다.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도 바로 이같은 문벌사회에서 기인했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지금까지 별열들의 문벌유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배층인 별열들의 문벌유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실체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별열들은 관직을 통한 녹봉이나 각 지방에 퍼져 있는 광대한 농

12) 황원구, 「별열정치」, 『한국사』 13(국사편찬위원회, 1984).

13)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한국의 역사상』(창작과비평사, 1992).

14) 차장섭, 『조선후기별열연구』(일조각, 1997).

장경영을 통해 경제적·물적 기반을 유지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항상 풍부하게 생활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예학의 시대에서 예를 숭상하며 문벌가문으로서의 체통을 유지해야 했고, 그에 따라 경제 감각이 무디었던 관계로, 그들은 늘 청빈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함께 벌열들은 혼인을 통해 가문간의 결합과 유대를 강화하여 문벌을 계속 유지했다. 벌열들에게 있어서 혼인이란 문벌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창달의 수단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체높은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번 혼인관계를 맺었던 가문과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른바 곽혼, 중혼 등이 그것이다.<sup>15)</sup> 특히 왕실과의 국혼을 통해 외척이 되는 것은 문벌의 지체를 높여줌과 동시에 정치 사회상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길이었다. 앞서 서처럼 인조반정 때 서인들이 국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내세운 ‘국혼몰실’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벌열들은 족보, 행장, 묘지명 등과 같은 대외적 가문추증사업을 통해 가문의 결속을 도모하거나 자가문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먼저 족보란 편찬 그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위세를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었다. 안동권씨나 문화유씨 등, 조선전기 문벌가문들이 족보를 편찬했던 이유도 이같은 족보가 갖는 권위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족보는 가문의 지위를 따지는 가문확인서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너나없이 기존의 족보를 재정비하거나 새롭게 편찬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행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했는데, 특히 벌열들은 선조의 뛰어난 행적을 자손들에게 알려 대대로 가문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자기 가문이 명문임을 자랑하는 선전 자료로도 이용했다.<sup>16)</sup> 그 대표적인 예로써, 김만중은

15) 송준호, 앞의 책, p.503.

16)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 구조와 소설사적 위상』(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자기 가문의 중흥에 결정적인 공로자였던 어머니 해평윤씨의 행적을 「정경부인윤씨행장」에 담았는데, 이는 그녀의 행적을 후손들에게 전하여 가문 유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숙종의 외척이 될 정도로 쟁쟁했던 자기 가문의 우월성을 마음껏 드러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엔 여성 행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각되었다. 최근 출간된 박석무의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이 시기에 이르러 어머니 집안 즉 외가의 문벌도 중시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어머니나 부인의 행장을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 그녀들의 삶에 대한 존중의 뜻도 없지는 않으나, 고미숙이 신문지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수퍼우먼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들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요, 이를 통한 남성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새롭게 주목받는 묘지명도 당쟁의 와중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넓게 보면 이같은 문벌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별열들이 문벌가문으로서의 가풍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시했던 것은, 대내적인 주자학적 가부장제 정착이었다. 조선후기는 문벌의 시대이자 예의 시대였다. 특히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 서로 죽고 죽이는 파행적인 정국 속에서, 지배층의 예에 어긋난 행동은 곧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별열들은 주자학적 예를 토대로 철저한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확립코자 했다. 먼저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가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의 자연적이었던 가족을 이념화시킴으로써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로 편제시켰다. 국가도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 간주한 채, 왕과 신하, 수령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보았다. 한마디로 가족주의 더 나아가 가문주의 사회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 일반화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모-자식-손자의 3세대가 동거하는 부계 직계가족이 늘어났다.

또한 별열들은 문벌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계 적장자 위주의 종법적 가(친)족제도를 확립했다. 문벌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

계 적장자 위주의 종통을 확실히 세워야 했다. 그 결과 적장자만이 가계를 계승하여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고, 차남 이하 자식들은 혼인 후엔 결국 분가하여 작은집으로서 큰집과 상하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으로 취급됨으로써 재산상속이나 기타 신상에 얽힌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이같은 종법적 가족제도는 가계를 계승할 후사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큰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엔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게 하는 이른바 양자제도가 점차 일반화되었다. 나아가 그같은 가족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처첩구분과 적서차별도 보다 엄격해야만 했다. 이에 처와 첩은 더욱 뚜렷하게 구별되어 서로 엄격한 상하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 자식들인 적자와 서자도 엄격히 구별해서 차별하였다.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서얼들의 저항운동은 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홀로된 여인의 생존을 위한 재혼도, 조선후기에는 종법적 가족제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금지했다.

이같은 종법적 가족제도의 확립에 따라 친족제도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친족제도에선 본족과 함께 외족·처족까지 망라했었지만, 조선후기엔 모계를 배제한 부계만의 친족제도를 강화시켜 가문유지를 도모코자 했다. 이같은 친족제도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족보에서의 기록형식의 변화였다.<sup>17)</sup> 예컨대 앞서처럼 부계와 모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했던 초기 족보와 달리, 후기 족보에선 부계 위주의 강한 배타성이 뚜렷해졌다. 그와 함께 이미 출가한 딸은 그 사위와 아들의 이름만 기록했고, 남자는 비록 연령순으로 기록하나 여자는 남자 뒤에 기록했다. 적서차별 또한 매우 심하여서 첩은 족보에 기록하지도 않았고, 첩 소생인 서얼은 적자 다음에 기록했다.

그런데 이같은 종법적 가(친)족제도는 남편과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장 혹은 가부장권의 확립을 동반하지 않고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래

17) 조선후기 족보에 관해서는 송준호, 앞의 책, 참고.

서 지배층은 종법을 유지하기 위해 관혼상제 등 유교식 의례를 철저히 준수했다. 본디 의례란 특히 빈번한 조상제시는 장자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확인하는 수단이자, 가부장권을 확립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더욱이 유교식 제시는 부계혈연 위주였으며, 남성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느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 가부장적 특권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묘(사당)를 설치하고 고-중-조-부의 4대봉사를 철저히 준수하며 가부장권의 확립을 통한 문벌 유지를 꾀했다.

이와 더불어 지배층은 가부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식들 특히 여성들의 행실을 철저히 단속시켰다. 이들은 각종 수신서를 편찬-보급함으로써 가장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앞의 행장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엔 『소학』이 국가사업으로 번역·간행·유포되고, 『효경』이 강조되며, 『내훈』 『여범』 『여사서』 『계녀서』 『열녀서』 등의 수신서들이 대거 번역되어 간행되었다.<sup>18)</sup>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 17세기 후반이래 사대부들에 의해 지어진 가문소설 또한 이같은 의식에 편승해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 소설은 주로 가부장권의 강화를 통한 가문의 유지와 창달을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사씨남정기에서는 처첩갈등을 통해 가장의 역할을, 『창선감의록』에서는 계후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갈등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장자의 자질과 여성의 부덕 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은 각종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들의 행실을 철저히 단속했다. 정절, 내외법, 출가외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 후기 여성의 정절은 가문의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었다. 심지어 국가는 열녀 표창과 부역의 면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를 장려했으므로, 농민이나 천민계층까지 급속히 보급되었다. 내외법도 여자는 7세만 되면 바깥출입을 금지시킨 채 집안에서만 살도

18) 진경환, 앞의 논문, p.72.

록 했고, 촌수가 먼 친척들에게는 서로 대면시키지 않았다. 가족도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시킨 채, 남자는 가장권을 가진 사랑채의 주인으로 여자는 주부권을 가진 안채의 주인으로 각각 살도록 했다. 출가외인 이데올로기도, 딸은 혈통이 다른 후손을 낳기 때문에 친정에서 출가외인으로 철저히 배제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예학의 발달과 당쟁으로 인한 문벌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정착되었다. 특히 그것은 조선후기 최상층 지배층이었던 별열들이 문벌을 유지하면서 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는 이전의 제한이나마 여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추구했던 사회와 달리, 부계 위주의 폐쇄적인 가부장제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선후기 여성소설은 이처럼 특히 상류사회에서 극심했던 가부장적 문벌의식에 대한 회의에서 태동했다.

한편 중앙의 별열정치로 관직에서 탈락한 양반들은 지방으로 낙향해서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중활동을 펼치며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런데 조선후기엔 기존의 농업기술의 발달이 종합적으로 집적되면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상품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천민이나 양인들 가운데 부를 축적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기존의 양반들 가운데 몰락하는 계층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신분제사회에서 점차 경제적 관계로 인간관계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향촌사회의 지배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7세기만 하더라도 확고하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적 향촌질서가 붕괴되고, 이제 향촌사회는 관의 일방적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sup>19)</sup> 그 결과 18세기 이후 지방양반들은 조상의 사패지나 연고지를 찾아 중소도지를 발판으로 대대로 학문을 닦고 예를 지키면서 양반기문으로서의 가풍을 유지하는 한편,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을 조직하여 족보,

19) 김인걸, 『조선후기 사회경제의 발전과 농민항쟁』,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 1990), p.204.

서원, 사우 등 다양한 문중활동을 전개하면서 가문유지에 힘썼다. 이에 따라 지방사회에서도 문벌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점차 전사회계층에 정착하고 말았다.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또하나의 갈래인 여성가사 즉 규방가사는 이같은 지방사회 특히 영남권에서 팽배했던 가부장제 가문주의와 대립하면서 출현한 것이었다.

### 3) 문벌사회 여성의 현실과 여성소설의 태동

조선후기엔 중앙의 별벌만이 아니라 지방양반들까지 가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문벌숭상풍조가 팽배해지면서 바야흐로 문벌사회 혹은 가문주의사회가 도래했다. 그에 따라 오늘날의 학벌주의처럼 출신 가문에 따라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고 관직 진출의 기회가 좌우되는 등, 가문이 사회생활의 지표로 대두되었다. 심지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성씨의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가문을 따져 평가하고, 서로 문벌과 지체가 맞아야 자리를 같이했으며, 결혼도 상대방 가문의 지위를 따져 자기 가문과 걸맞아야 통혼관계를 맺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문은 제도가 아닌 관습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 관습은 국가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힘과 권위를 가졌다. 그리하여 가문은 이제 더이상 부계친족집단이란 형식적 범주에 머물지 않고,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는 현실적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관념적 이데올로기로까지 비화되었다.<sup>20)</sup>

이처럼 조선후기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관과 삶의 지표도 자연 바뀌게 되었다. 우선 사회에 개인이 아닌 가문 속의 나라는 존재의식, 그리고 가문을 위한 인생이라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래서 남성들은 가문 유지와 창달이란 중압감에 억눌린 채, 개인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만 했다. 그들의

---

20) 조선후기 문벌숭상 풍조에 대해서는 송준호, 앞의 책, 참고.

유일한 청춘의 꿈은 과거급제였다. 그것만이 가문을 빛내는 길이었다. 또한 『양반전』의 양반처럼 양반은 굶어죽더라도 기예를 배우지 않고 오직 글공부에 전념하며 가문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야만 양반신분을 유지하고 균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가문을 위해 늘 행실을 조심하며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남성들이 일상생활과 무관하고 경제활동에 경험이 없는 선비를 이상으로 여긴 채 대대로 학문을 닦고 예를 지키면서 가문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으로 대표되는 문벌가문의 일상생활은 철저하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후기 여성들은 일상의 다단하고 굵은 일에서부터 정신적인 바탕의 형성까지 온갖 가문관리를 도맡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이문열 「선택」의 장부인처럼, 우선 여성들은 며느리 곧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만 했다. 며느리는 아침저녁의 음식과 계절에 따른 의복을 지어야 했다. 또한 대가족사회에서 자식관리만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해야 했으며, 친인척이나 식객 등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해야 했다. 특히 예학이 발달하고 물건을 직접 교환하여 쓰는 물물경제 시대에서 봉제사접빈객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대 양반들의 생활상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는 오희문의 『쇄미록』이나 남평조씨의 『병자일기』 등을 보면, 제사는 월평균 2회 이상 혹은 어느 달엔 제삿날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왔다. 또한 손님맞이도 그저 인사하고 차나 술 한잔을 내주는 정도가 아닌,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물건을 갖고 오고, 주인 역시 먹거리나 생활용품 등 뭔가를 챙겨주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었다. 다음으로 할머니 곧 마을의 안어른이 되어선 자식만이 아닌 손자까지 관리하고, 대개가 일가친척으로 둘러싸인 친족공동체 사회에서 이웃과 마을 전체의 대소사까지 신경써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앞에서처럼 조선후기는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경제력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고 신분

유지에도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는 무관한 채, 학문을 닦고 예를 지키면서 가문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 책임(治産)까지 떠맡아야 했다. 예컨대 상층여성들은 집 안팎의 노비들을 관리하면서, 길쌈, 농업경영, 절약 등을 통해 가정경제를 운용했다. 나아가 예의범절을 목숨보다 중시했던 시대에서, 여성들은 까다로운 예절과 각종 교양까지 습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들의 가문내 역할은, 비록 생존과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가문주의 사회에서는 한낱 남성세계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이전의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사회에서까지 여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했다. 예컨대 부계 적장자 위주의 종법적 가(친)족제도는 여성들을 정통성에서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속대상에서도 배제시켰다. 그래서 가족들은 여성들을 혼인과 더불어 출가외인(남)으로 취급한 채, 시집의 혈통계승과 시부모봉양을 위한 수단으로 내몰았다. 여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혼속과 결혼생활도, 남성 중심의 친영 혹은 반친영으로, 친정생활에서 시집살이로 각각 보편화시켰다. 또한 가부장제는 재가금지나 정절과 같은 각종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삶을 통제했다. 그리하여 사회 전반에 남존여비 의식을 확산시켰다. 이같은 양상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전 사회계층에 걸쳐 점점더 심해갔으며, 상류사회일수록 더욱 극심했다. 장편 여성소설은 바로 이같은 문벌사회 여성의 현실에서 태동했으며, 그같은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파편적인 형태일지라도 근대적인 여성해방의지까지 표출하였다.

조선후기엔 여성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당대 여성들이 지향했던 세계상을 표현한 일군의 국문 장편소설이 출현했다. 이것들은 주로 국문 필사본이며, 전편과 후편 및 기타 방작들로 계속 이어지는 연작소설이자, 수십 수백책에 이르는 대하 장편소설이었다. 이들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는 여성작가에 의해 지어진 여성소설만이 아니라, 아직 작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용면에서 여성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여성 주제의 성격의 소설도 있었다. 대개 이같은 성격의 국문 장편소설은 이미 17세기의 후반 『한강현전』(1676)에서부터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형성은 그와 비슷한 시기인 최소한 1694년 이전에 창작된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과 그 방작인 『한씨삼대록』 『설씨삼대록』 등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의 절정은 역시 18세기였다. 우선 이들의 전통은 18세기에 들어서도 『명주기봉』 『취미삼선록』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특히 18세기에 전문적인 여성소설가까지 등장했는데, 『옥원재합기연』-『옥원전해』 연작의 작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작품의 작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여성소설가에 의해 지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리고 이 여성소설가는 이밖에도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기린』 등을 지은 전문 작가였다. 또한 18세기 초·중반 이씨부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180권 180책의 『완월희맹연』은 이들의 결정판이자 세계적인 대작이었다.

이들 장편 여성소설엔 문벌사회 여성의 현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선 이들 소설엔 조선후기 문벌가문의 평범한 가족들의 생활상이 매우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앞장에서 보았던 조선후기 지배층의 생활상, 곧 멀게는 종통계승을 위한 양자제도의 풍습과 가문유지를 위한 제한된 통혼관계 및 국혼문제에 이르기까지, 가깝게는 자녀들의 출산에 대한 기쁨과 가족들의 질병·죽음·제사에 따른 슬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연륜적으론 어린아이에서 성년 및 노인층까지, 계급적으론 왕실과 양반층만이 아니라 노비층과 평민층까지 다양한 인물군상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설엔 무엇보다 조선후기 여성들의 관심사와 규방생활이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다. 여성들의 의복이나 음식 장만과 같은 가사노동, 출산의 정황, 잔치에서 여성들만의 모임과 대화장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한마디로 장편 여성소설은 조선후기 문벌가문과 규방여성들의 생활사를 소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특히 이들 소설은 여타 소설들과 다른 매우 독특한 담론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부장제 가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억압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단편적이거나 근대적인 여성해방의지까지 표출하고 있다. 먼저 자기체험의 글쓰기로서, 위에서처럼 이들은 집안 내의 평범한 가족들의 생활상을 거의 그대로 소설화했다. 이들 소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당대인의 일상적 체험을 별다른 여과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오늘날 남성비평가들이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사소설이 아닌, 허구세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자체로 온전하고 총체적인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화체적 글쓰기로써, 이들은 대화체를 통해 사건을 극적으로 전개시키면서 다양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소설의 사건은 화자의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주로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화해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결과 이들 소설엔 심리 묘사가 매우 풍부하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갈등의 와중에서 대화나 독백을 통해 거의 직접적인 형태로 당대 여성문제를 제기하는데, 남성들의 다처제 풍도와 여성들의 출가외인 풍습을 비판하고, 여성에게 부과된 삼종지의를 무시하며, 가부장제 문벌사회에서 여성들의 각종 부자유스런 생활에 대해 자의식적으로 비판한다. 심지어 여성들은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도 규중에 침몰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써히고 있는 제도적인 현실까지 비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부정한 남성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는 자매애를 통해 현대의식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들 소설에선 때로 작가가 직접 문면에 나서거나 혹은 주변인물의 우회적인 목소리를 빌어서 당대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소설의 특징은 무엇보다 내용면에서 여성과의 친연성에 있다. 우선 이들도 사대부창작 가문소설인 『창선감의록』처럼, 표면적으로 가문(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토대로 가문의 질서와 창달을 이루는 모습을 끝낸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후기 상층여성들의 또다른 현실적 처지를 반영한 것일 뿐, 내면적으로 갖가지 가족갈등을 통해 다양한 여

성 세계와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주기봉」은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은 비록 문벌가문을 배경으로 펼쳐지지만, 가부장제 가문의식이 아닌 부부간의 성격대립이나 자존심 대결과 같은 근대적인 개인의식 특히 여성의를 보여준다. 심지어 『소현성록』은 부부간의 지위문제를 놓고 미묘한 권력다툼을 벌이는 부부갈등을 주조로, 여성들의 자존의식을 표출하거나 여성들만의 또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완월회맹연』은 조선후기 여성세계를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sup>21)</sup> 이 작품은 정씨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사건들을 포용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 즉 정씨의 4대에 걸친 가족문제를 중심사건으로 전개하면서, 그 각각의 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외부 사건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 저마다 당대 여성들의 세계상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이 작품의 정씨는 여성이 가장인 여가장제 가족인데, 이로 인해 중심사건은 자연스럽게 여가장 서태부인의 가문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세대와 관련된 외부 사건들은 대개가 단편 여성 이야기이다. 각 세대의 결혼담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행태를, 영웅담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활달한 애정추구의 모습을, 그야말로 폭넓고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시대상만 서로 다를 뿐, 현대 소설인 박완서의 『미망』이나 박경리의 『토지』와 너무도 유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편 여성소설은 문벌사회 여성의 현실을 배경으로 태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의는 그같은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파편적인 형태일지라도 근대적인 여성해방의지까지 표출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로 보면 지금까지의 한국 여성주의문학이 근대 이후 서구의 충격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거의 동시대에 태동했음을 알 수 있다.

21)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1998.6).

### 3. 남은 과제

이 글은 조선후기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 여성소설의 태동과 존재를 둘러싼 사회사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아가 이들 소설의 역사적 의의까지 파악코자 했다. 특히 이 글은 본격적인 문학론보다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들 소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회사적 이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한 당면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소설을 둘러싼 주변적인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밖에도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할 듯하다. 우선 문화사적 측면에서, 조선후기 여성들의 소설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 당시 중국소설과 국내소설을 비롯한 여타 소설과의 관계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